

# 제58호

서기 1997년(단기4330년)10월 25일(토요일)발행  
 서기 199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0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02)243-1073



發行人: 金相勳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 特別市 東大門區 徽慶1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244-3717. fax: (0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 時享日程表

先 祖 位	享 祀 日	曜 日	墓(壇)奉安所
忠烈公諱方慶 之墓 冷平國夫人竹州朴氏之壇	十一月八日 陰十月九日午前九時	土	慶北安東市祿轉面竹松里 慶北安東市豐山邑檜谷洞
文英公諱恂 之墓	十一月六日 陰十月七日	木	京畿道安養市東安區冠陽洞後山
文肅公諱永暉 之壇 上洛伯公諱縝 之壇 提學公諱益達 之壇	十一月五日 陰十月六日	水	忠南天安市並川面佳田里
貞簡公諱永熙 之壇 領三司事公諱咸 之壇 按廉使公諱士廉 之墓	十一月四日 陰十月五日	火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亨里
掌令公諱成牧 之墓	十一月初一日 陰十月初十日	土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密直司使公諱七祐 之壇	十月二十六日	日	京畿道抱川郡東面社稷里
開城尹公諱七霖 之壇	十月十二日	日	京畿道廣州郡草月面池月里
文溫公諱九容 之壇	十月三十一日 陰十月一日	金	京畿道抱川郡倉水面伍佳里
都評議公諱九鼎 之墓	十一月三日 陰十月四日	月	慶北義城郡義城邑杏峴里
翼元公諱士衡 之墓	十一月八日 陰十月八日	金	京畿道楊平郡楊西面木旺里
掌令公諱莢 之壇 書雲觀正公諱綏 之壇	十月三十一日 陰十月一日	金	京畿道儀旺市浦一洞廣谷里
安靖公諱九德 之墓	十一月三日 陰十月四日	月	京畿道驪州郡南面元承里
副使公諱天順 之壇	十一月十五日 陰十月十六日	土	忠南洪城郡銀河面大川里
判書公諱愷 之壇 大提學公諱承用 之壇 評理公諱厚 之墓 郡事公諱七陽 之墓	四月二十二日 陰三月十六日	火	全南康津郡鵠川面土馬里 南山

### 周知事項

忠烈公 時享은 陰十月 九日(陽十一月八日) 九時부터 올린 後、 待機시킨 버스로 檜谷洞에 가서 할머님 時享을 올리고, 中食后 그 버스로 安東驛에 午後二時三十分까지 到着하여 歸家길에 오르도록 從來 二일에 걸친 時享을 하루로 短縮하여 數年 전부터 繼續 奉行하오니 全國 宗親께서는 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追而... 京鄉各地에서 時享에 參席하는 祭官들은 陵洞齋室에 備置한 「到記」에 必히 記名하시길 바랍니다.

## 享奉祭總公烈忠始祖中

지난 9월 17日(陰8月 16日) 大宗會會館에서 忠烈公 할아버님의 697周忌 追慕祭를 奉行하였다.

初獻官은 大宗會 相勳會長님이 獻爵하시고 亞獻官은 大宗會名譽會長이신 泰亨會長님이 獻爵하였으며 終獻官은 大宗會 理事인 文溫公派 琮會 理事님이 獻爵하였다.

이날 참석한 祭官은 三獻官外에 斗會副會長, 大宗會 理事 開城尹公派 相國, 按廉使公派 聖會, 翼元公派 榮俊, 在起, 仁鍾, 在瑢, 書雲觀正公派 圭冕 宗親과 翼元公派 前總務 在億, 興會 宗親이 參禮하였고 祭需準備는 總務 命會가 집에서 작만해 왔다. 祭祀를 禮成한 뒤에 음복과 점심을 들며 會長님을 비롯 모두가들 호뭇해하며 來年부터는 널리 알려져 제관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을 제시 하였으며 특히 泰亨 名譽會長님은



八旬 老齡에도 할아버님 제사에 한번도 빠진 일이 없는 崇祖의 大 精誠에 모두 감탄하였고 餘談

으로 情을 나눈 뒤 1시 반경 解散 하였다.

## 贊助者名單

(7, 12-9.30)

- 五十萬圓: 在國(按) 청주
  - 十萬圓: 석호(미상), 응식(미상).
  - 五萬圓: 병목(郡), 용세(按), 영옥(翼), 제학공 이원중친회, 시묵(密), 병찬(副), 만회(미상), 세용(미상), 재철(翼), 길성(翼).
  - 三萬圓: 석희(按), 재수(미상), 홍기(翼), 재선(按), 태영(미상), 용섭(翼), 용희(미상), 봉술(미상), 순희(大)
- 計 1,470,000원

## 忠烈公 考妣位 祭需 贊助

(9, 17)

- 十萬圓: 泰亨 명예회장(翼)
  - 五萬圓: 익원공과중친회
  - 三萬圓: 相國(開), 중희(文)
  - 二萬圓: 在起(翼), 규면(書)
- 計 250,000원

회비 및 찬조금을 납부해 주신 여러 현종에게 감사드립니다.

# 中始祖忠烈公墓所와 妣位冷平國大夫人 竹州朴氏할머님 壇墓所 參拜

지난 8월 16日 土曜日 우리 安東金氏大宗會는 40余名の 會員을 모집하여 大宗會 相勳 會長님과 같이 安東市 綠田面 九松里 陵洞에 모셔 있는 中始祖 諱方慶 高麗 忠烈公 墓所와 豊山邑 檜谷洞에 모셔 있는 할머님 壇墓所를 參拜 하였다. 이는 近來 젊은 세대가 과학 문명에 쫓기어 신세대 핵가족사회에 휘말리어 崇祖精神이 희박하여 저서 뿌리를 잃어가고 있음이 개탄스러워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 부터라도 後孫들에게 잊혀져 가는 뿌리 교육과 崇祖理念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여름 휴가철을 기하여 이에 취지를 宗報에 公告하여 行事를 實施한 것이다. 지난 7월 宗報에 公告하여 8월 5일까지 會費納付를 해 달라는 公告文을 낸 바 기간내에 40余名の 會員이 申請을 하여 16日 龍山驛廣場에서 7時 正刻에 出發하여 忠北 中原 휴게소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 安東까지 가는 동안 按廉使公派 榮洙 賢宗

께서 忠烈公 할아버님의 歷史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 주었으며 또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며 安東에 到着한것이 正午 12時 10分이었다. 安東驛에서 기다리던 常任齋有司 鳳洙 宗親, 光得 宗親 또 大邱에서 올라온 宗親들을 만나 그분들의 案内를 받으며 우선 神道碑閣을 들려 參拜하고 墓所로 向했다. 陵洞 할아버님 山所아래에는 齋室이 우뚝 서 있고 影幀閣에 할아버님 影幀이 모셔 있어 할아버님 影幀앞에 會長님께서 焚香을 하고 다같이 參拜를 한 다음 到記錄에 參拜者들의 各自 氏名 住所를 記錄하고 山所에 올라가 準備된 祭需를 차려 올리고 會長님께서 焚香과 降神禮에 이어 會員들은 參神再拜를 한 다음 獻官께서 獻爵을 올리고 會長 就任 告由祝文을 奉讀한 다음 辭神再拜로 行祀禮畢을 했다. 管理室에 내려와 미리 준비한 점심과 常任有司 鳳洙 宗親이 安



東民俗酒를 협찬하여 飯酒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꾸민다고 맛있게 하였다. 이어서 豊山邑 檜谷洞 할머님 壇墓所에 가는 길초에 忠烈公 할아버님이 武藝를 연마하던 上洛臺가 있는데 時間에 쫓기어 들리지 못하고 할머님 壇墓所를 參拜하고 할아버님의 遺墟碑閣을 들려 본

다음 下午 5時에 歸京길에 올라 모두들 그 동안 못다한 崇祖孝行을 백분의 일이라도 실천함과 몰랐던 祖上님의 歷史와 家門의 긍지를 조금이나마 일깨워졌음에 흡족해 하면서 歡喜의 談笑가 끊이지 않은채 서울에 도착하여 헤어지기를 아쉬워하며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 大宗會報購讀案内 및 平生 會費制 新設

大宗會報가 創刊된 지 15個년이 되는 동안 애독하여 주신 중친 제위의 성원과 격려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會報刊行에 있어서 大宗會에서는 宗親들간의 友好增進과 崇祖精神의 仰揚을 目的으로 莫大한 경비를 들여 刊行하고 있습니다.

會報刊行은 宗親들이 納付해 주시는 通常會費 1萬원으로 하고 있는 바이나 會費納付狀況이 부진함과 물가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會報刊行이 困難하여 만부득이 通常會費를 年2萬원으로 引上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난 6월 28日 燕岐大捷에 승장이신 析할아버님 유적비 건립시 理事會議를 現地에서 開催하여 協議可決하였으며 또한 平生會費制를 新設하여 一人 20萬원이상을 일시에 납부하면 自己平生동안 會費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規程을 審議通過되었기에 宗報에 알리는 바입니다.

宗報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喜悲愛樂에 대한 消息과 祖上님들의 歷史를 밝혀 주는 눈이요, 귀인 것입니다. 만가지 가계에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널리 諒察하시고 會費納付를 誠心껏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중친들 중에 宗報를 구독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권고해 주시고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全北 金堤市 竹山面에 有一望土하니 金峻會 一名錫浩요 號는 竹補인바 忠烈公의 二十四代孫으로 郡事公의 八代孫 洗馬公 諱堪의 十二代孫이며 父親 諱在旭과 어머니 潭陽 田氏 사이에서 십남매 중 장남으로 소년시절부터 재능이 過人하고 성품이 단정하여 학업에

## 郡事公二十代孫 峻會 少領 讚揚文

전년타가 세대가 불안정하니 호국이념으로 군에 입대하여 當年 20세에 將校로 越南戰에 勇躍參戰하여 전공을 세워 仁憲武功勳章을 받았으나 飛彈에 一級戰傷者가 되어 陸軍少領으로 豫編을 한 후 父母에 孝心이 지극하고 형제지간의 우애가 돈독한 끝에 先考喪을 당하여 15家率의 戶主로서 子女教育이며 病院費와 제반사정이 生計에 難堪함에도 粉骨碎身의 苦衷을 극복하면서 主敬야독하여 行政大學院을 修了하였으며 雙手空拳으로 事業을 自立한바 弘進商工物產과 韓國通運의 代表理事를 歷任하면서 精神一到로 爲先事業에 執念을

쏟아 現竹山面 鳴良山에 家族墓園을 造成 先代諸位墳墓를 安葬하고 儀物을 갖추어 正화하였고 齋室도 建立하고 題號를 崇祖閣이라하고 安東金氏世葬山이라 表記하였다. 평소 남다른 正義性을 固守하며 各宗事에 率先獻誠하고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상패와 포상도 30여 차례나 받은 사실이 있다.

近來 特異한 爲先事業으로는 洗馬公 銅像建立에 莫大한 資金을 단독 부담키로하니 온 宗賢들의 찬양과 칭송이 자자하다.

이 원고는 同親間인 榮得甫께서 提報해 준 것이다.

## 地域宗親會 大宗會에 登錄要望

大宗會 定款 第5條 1, 各派에 派宗會와 地方에 宗親會를 둔다. (2) 海外居住宗親을 위하여 外國에 地域別 宗親會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 現在 各派宗會는 大宗會에 一括되어 構成體를 갖추어 運營하고 있으나 地域宗親會는 아직 정식 登錄절차를 갖추지 않아 運營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會長님께서 앞으로 大宗會의 發展을 위해서는 各地域宗親會를 正식으로 登錄을 받아 活性化하고 任員도 配慮해서 폭 넓게 運營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가지시고 지난 6월

28日 鳥致院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한바 모두 찬성하여 앞으로 이를 실현코자 합니다. 各地方 宗親會들은 이미 大宗會에서 알고 있는 宗親會도 있으나 아직 파악 되지 못한 宗親會도 있으므로 차후 登錄절차에 대한 소정 양식을 송부하겠으니 접수 즉시 申請書를 제출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되어 書類를 接受치 못한 宗親會에서는 代表者께서 連絡을 주시면 즉시 양식 서류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FAX : 780-8478  
783-3167 자택 : 552-5327  
780-84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

### 郡事公派 洗馬公 諱堪 墓所 淨化事業

지난 4월 26일 郡事公의 八代孫인 洗馬公 諱堪祖의 春享祭時 50余 後孫들이 參禮하여 享祀를 奉享하고, 그 간 宗會의 숙원사업인 洗馬公 墓所 둘레석과 脣前난간 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제시하고 가부 표결한바 參禮한 宗員 전원이 만장일치 가결하여 각기 형편유무 대로 75명의 宗人들이 獻納한 금액이 700余萬원이 齎出되었다. 이로써 宗員 願門인 榮得 賢宗과 會長 彰會 賢宗, 總務 在坤 등이 주관하여 묘봉분 둘레석과 순전 석축공사 또한 묘소진입로 600여 미터의 개설공사를 6월 12일 완공을 하고

安慰祭를 올리었다. 이는 오직 宗親들의 崇祖精神과 宗親相互間 親睦이 敦篤하여 團結된 참 모습이라 思料되어 이에 칭송을 드리는 바이다.



### 대추꽃 禮讚

긴 겨울의 살을 예이는 매서운 추위와 서북에서 불어 오는 모진 바람을 이겨내는 것은 봄이다.

질서의 변화에는 어이할 수가 없는 모양이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야에 흐트러지게 피었다 지고 桃李杏花가 석양 햇살에 번갈아서 자태를 드러낸다. 그 많은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질 때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賞春客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梨花는 순결하고 복사꽃은 요염하고, 杏花는 애절하고 벚꽃은 화사하고,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고, 석류꽃은 다남을 뜻하며, 梅菊은 군자를 의미하고, 60년만에 핀다는 대나무의 꽃은 그 열매를 鳳凰이 먹는다고 하여 높이 평가 받는다. 이 글의 주인공인 대추꽃은 지극히 적고 색깔도 잎새와 같으며 질은 향기도 없어 佳人들의 칭찬을 받는 적이 없고 詩歌의 素材로 등장한 데도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봄꽃이 자취를 감추고 신록이 산하에 뒤덮인 小滿을 전후하여 연록색 잎이 나고 芒種 무렵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夏至에 만발한다.

우리의 생활이 현대화 되지 않아 어려운 보리고개를 허위적 거릴 때 대추나무에 새가 앉아 보이지 않으면 보리가 익는다고 하여 알량한

서민들은 그 잎이 빨리 피기를 기다렸으니 이것이 지난 날의 서글픈 鄉愁로 머리에 선연하다. 여기에 唐詩 한 구절을 소개하면,

棗花至小能成實 桑葉雖柔鮮吐絲  
堪笑牧丹如許大 不成一事又空枝

대추꽃은 지극히 작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뽕잎은 비록 부드럽다 해도 명주실을 토해 낸다. 가소롭다 모란꽃 허우대만 커서 아무것도 할일 없이 빈 가지만 남았구나.

나는 이 글을 애송하고 음미한다. 그러나 皇城터의 시름겨운 곡조와 梨花月白의 풍류담긴 구절은 향간에 구송되지만 대추꽃을 읊은 훌륭한 글을 아는이가 드물다. 東醫寶鑑의 大棗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대추는 성질이 화평하고 몸의 온기를 도우며 달고 독이 없으니 속을 편안케 하고 脾臟을 기르고 五臟을 보하고 열두 경맥을 활발히 하며 진액(피,땀,눈물,침,정액 등)을 도우고 九竅(눈,코,귀,입,요도,항문 등)를 잘 통하게 하고 뜻을 강하게 하며 百藥을 조화시킨다. 속살은 허를 살찌우고 합탕에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주맥의 부족함을 채워 주고 혈액을 완화하고 혈액이 완화되면 맥이 나는 고로 열두 경맥을 도운다는 것이다. 桴대

추를 많이 먹으면 헛배가 부르고 야위어지고 열이 나며 익혀서 먹으면 장위에 좋고 속을 채우고 기를 돕고, 생식하면 설사한다고 적혀있다.

이것은 약으로 쓰일 때를 말한 것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을 찾아보면 자녀의 혼사에는 폐백의 옷거리요, 조상의 제사에는 조율이시(대추,밤,배,감)의 첫째요, 1년 먹을 장담이에는 숯과 함께 띄우고 귀한 손님에게는 대추를 대접하며, 청빈한 선비들은 대추 하나로 요기를 했었으니, 그 존귀성이야말로 다른 과실과 비할 수 없다. 그런 데도 꽃은 騷客佳人的 푸대접을 받았으나 꿀벌은 즐겨 찾으니 그는 사람보다 실리에 밝은가 보다. 그 저 남에게 들어나지 않고 주위의 칭찬 없이 가을에 훌륭한 열매를 거두는 대추꽃이 조바처럼 처발리는 5월의 하늘 아래 형제간에 시샘으로 죽은 원혼의 변신인 뼈쪽새가 앞뒷산을 오가며 한유하게 울어대니 布穀處處催春種이란 글귀와 같이 참깨심기 콩가리의 1년 농사 준비에 긴긴 하루 해도 모자라는 때 묻지 않은 농심에 우순풍조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기대해 본다.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金昌會

### 좋은 아버지가 되는 20계명

- \*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
- \* 좋은 말을 먼저 하라.
- \* 좋은 일을 우선 행하라.
- \* 좋은 일은 흉내내 보라.
- \* 좋은 일은 이웃과 나누라.
- \* 항상 부지런하고 검소하라.
- \* 항상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라.
- \* 항상 마음과 얼굴을 밝게 하라.
- \* 항상 문화를 사랑하는 가풍을 세우라.
- \* 항상 온가족이 좋은 미래를 꿈꾸라.
- \* 자녀 앞에서 부모님 흉을 보지 말라.
- \*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 \* 자녀의 생각과 판단은 존중하라.
- \*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 \* 자녀에게 공부만 강요하지 말라.
- \* 자녀에게 함부로 매질하지 말라.
- \* 자녀에게 똑같은 일로 자주 훈계하지 말라.
- \*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말라.
- \* 자녀를 남과 비교해 말하지 말라.
- \* 자녀 앞에서 의연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라.

###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組版 印刷 製冊 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本社 社屋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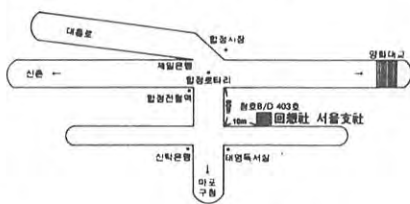
### 疾譜 出版의 元祖

####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輯,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할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練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頒映 便宜提供

###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の 收單, 整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 疾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 ~ 3, 256-1263  
FAX (042) 253-9891 白毫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 향교와 書院

향교와 서원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 기능과 유래에 대하여 설명코자 한다.

향교는 전통시대의 지방 국립교육 기관으로 行政長의 주관으로 인재를 양성하던 학교입니다. 지금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가의 관리하에 있으며 성균관의 주도하에 교화기관으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향교는 과거 고려 시대부터 '局堂(경당)'이란 명칭으로 시작하여 향교로 개칭되었으며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능과 함께 祭享기능이 있어 왔는데 민족사의 도정에서 학문사상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겨레의 師表가 되는 특출한 先賢을 뽑아 위패를 모시고 그 위덕을 기리며 본받고자 하는 염원을 모아서 후학들이 춘추로 제향을 드리고 초하루 보름으로 분향을 올리며 경배하는 성스러운 수양치이면서 忠과 孝, 禮를 가르치는 국민 교육장으로 전국에 2백 34곳이 일관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원은 전통시대 사립 지방 교육기관으로 학덕과 경륜이 높은 賢人들이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웠으며 또한 조정의 권장으로 불교사원을 대신하여 유교 교육장으로 서당, 선현사, 향현사, 세재 등이 세워져 인재 양성을 같이 하였으나 서원은 아니었으며, 서원은 선현을 제사하는 祠와 강

## 향교는 國立, 書院은 私立

학하는 교실 齋가 병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祠만 설치한 것은 서원이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나라 서원의 시초는 조선 중종 38년(1543)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白雲洞書院으로 비롯되는데 이 서원을 명종 5년(1550)에 이퇴계가 왕에게 계청 紹修書院이란 扁賜(현판)와 책, 노비, 田結 등을 하사하여 이들에 대한 면세, 면역(국가 동원 면제)의 특전까지 부여하였다. 이로써 賜額書院의 시초가 되었으며 때마침 향교가 기능이 부실한 곳의 서원에는 요청에 따라 사액서원을 장려한 일이 많다. 이로써 서원은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특권적인 것이 되어 부속된 토지에 면세, 면역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악용, 폐단이 야기되었고, 서원을 근거로 양민을 토색하는 경우로 발전하기에 이르러 인조 22년(1644)에는 서원 설치를 허가제로 하다가 효종 8년(1657)에는 서원을 거둬 설치하는 자는 처벌까지 하게 되었다.

정조 때에는 서원이 6백 50개소가 되었으며 유명한 서원은 陶山書院, 송악서원, 화양서원, 만동묘 등이었으나 고종 1년(1864)에 서원 정리를 시작하여 5년에는 서원에 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8년에는 대원군에 의하여 드디어 전국의 서원을 정리하여 사표가 되는 서원 46개소만 남기고 모두 폐철토록하였다.

# 安東金氏 大邱 靑壯年會 消息



安東金氏 大邱 靑壯年會는 熙福會長을 중심으로 任員 全員이 뜻을 모아 지난 5월 總會를 갖은 뒤에 7월 1일부터 靑壯年 會報를 발간키로 결의하고 會報의 명명을 崇祖睦宗報라 하고 9월 1일자로 3호를 발간하였는데 會員들의 호응이 대단하다고 한다. 또 靑壯年會를 발족하면서 우리 安東金氏 15派 派祖와 歷史의 人物 墓所 및 祠宇를 巡禮 參拜를 연례행사로 每年 春夏季節에 實施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엔 都評議公 墓所를 參拜하고 8월에는 提學公 墓所(壇墓)와 槐山

忠愍祠를 參拜하였다 한다. 派祖 墓所 參拜時엔 祭需를 꼭 準備하여 陳設하고 분향 헌작을 꼭 드린다. 이야말로 精誠이 담기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니 어찌 찬사치 않으리오. 앞으로 大邱 靑壯年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며 宗事에 勞苦가 큰 任員을 紹介하면, 會長 熙福, 副會長 英植, 在五, 在天, 總務 槓, 財務 在晚, 監事 瑾會, 理事 允秀, 慶秀, 泰燦, 五會, 泰彥, 錫培, 補植, 榮和, 泰軾, 泰福, 泰權 분들이다.

다고 다짐하는 봉회 종친은 현재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증평시민회 공동대표, 장들로타리 클럽 사회봉사위원장 직도 역임하고 있으며 부인 조태숙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 여중생이 장편소설 '가출일기'를 출간해 화제

안동 김씨 증평 종친회 대연(충렬공 23대손 안렴사공 19대손)종친의 손녀인 혜정(증평여중 2학년)양의 '가출일기'라는 장편소설을 문학수첩출판사에서 출간해 화제

가 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가출, 폭력 그리고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10대들의 방향을 기성작가 뺨치게 그렸다. 소설은 PC통신을 통해 다양하고 생생한 체험을 살려 자신의 욕구와 친구들의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는데 "우리들을 별나게 태어난 세대로 보지 말아 달라"는 김양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관회 종친의 차녀로 장래 희망은 정치가나 작가라고.....

## 안동 김씨 증평 종친회 소식

###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 翼元公派: 준식, 수돈, 태호, 상용, 종희, 태관, 경중, 호식, 진창, 재운.
- 按廉使公派: 이희, 재하, 재웅, 태성, 오식, 재선, 思順, 사관
- 提學公派: 태하, 재환, 성희, 재학
- 郡事公派: 수용
- 文溫公派: 재희, 종영, 안영, 철희
- 正義公派: 종희
- 開城尹公派: 상위
- 派未祥: 경열, 수천, 공희, 재관, 규태, 현식, 용득, 원기, 태건, 태영, 정희, 민경, 재택, 태영, 영복, 상위, 현득, 무명1.

計 740,000원

## 봉회 종친 농협조합장 무투표당선

증평 농업협동조합 초대 민선 조합장인 봉회(충렬공 24대손 안렴사공 20대손) 종친이 제 2대 민선 조합장에 무투표 당선되었다.

봉회(47세) 조합장은 그 동안 원만한 대인관계와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이끌어 무투표 당선이 일찍부터 예견되었다.

농협의 모든 사업을 농민 본위로 복지 농촌 구현을 위해 헌신하겠

## 老隱亭 문화재 지정 경축식

지난 9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노은정 현지에서 안렴사공 11대손 휘 相器 선조가 건립한 老隱亭이 1997년 8월 5일자로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 355호로 지정을 받아 천안시 병천지역 기관장과 안동김씨 종친회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날 경축식은 정자를 건립한 휘 상기 할아버님의 9대손 聖會(대종회 이사)종친의 사회로 경과

보고와 감사패 전달, 문화재 지정서 전달, 문화재 관리인 위촉, 경축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축사는 김상기 할아버님 11대손 김홍식, 내빈 축사는 대종회 상훈 회장을 대리하여 두회 부회장이 했으며, 감사패는 목천의 향토 사학자 李元杓선생, 병천의 입향조 참봉공파의 군자감정공 종중 金永植 중손이, 노은정 문화재 지정에 지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

았고, 문화재 지정서는 병천면 金天應 면장이 김홍식 종친에게, 문화재 관리 책임자로 金容勣씨에게 각각 수여했다.

특히 이날 노은정 문화재 지정 경축식에는 천안시 의원 황규민 의원, 한국고서협회 김재갑 회장, 성환 동성중학교 金南應 교장, 천안시 향토 사학자이며 성환 동성중학교 교사인 황석유 선생 군사공파 재석 회장, 안렴사공파 章會 회장, 익원공파 영준 부회장 등 경향각지에서 불원천리하고 축하해 주셨다.